

◎ 이 사람

세계 디자인 전당에 이름 올린

모교 미술대학 교수 최병훈(24·응용미술) 동문



집이나 나무로 된 가구가 있다면 장롱이든, 식탁이든 한 번 기대어 둘어디보자. 우리 생활에 편의함을 주는 가구들이 한때는 깊숙이 뿐만 아니라 대지를 움켜쥐고 헛빛을 밟던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미 두께로 차운으로 거쳐져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속에 숨고 있는 레그램과 부드러운 나뭇결의 꼭두선 속에는 용이진 바이佬의 세월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 한번 디자인의 일っぽ음을 나누는 우리 생활의 일生产生活이 되었고, 이제 그 것을 넘어 예술가의 손을 거친 예술품으로 재탄생했다.

‘모교 미술대학 교수 겸 박물관인인 최병훈(24·응용미술) 동문이 디자인한 ‘태조의 잔상(6~222)’과 ‘태조의 잔상(7~244)’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디자인 전당이라 불리는 비트리 디자인 미술관(Vitra Design Museum, www.design-museum.de)의 소장 목록에 오르게 되었다. 비트리 디자인 미술관이란 비트리온 세계 디자인 미술관으로서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미술관으로,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디자인 아이디어나 디자인 작품이 소장되기를 원하는 곳이다. 비트리에 작품이 소장된다면 국제적인 디자이너임을 인정받는 동시에 자신의 작품이 국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최 동문 역시 십여 년 전 처음 비트리에 디자인 뒤, 서너 차례 차를 떴을 때마다 ‘언젠가 내 차들도 여기에…’를 마음속으로 다짐해 왔다. 꿈을 이룬 성경강간에 도착되어도 좋으련만 그는 그저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 소박하게 웃었다.

이번에 비트리가 소장하게 된 최 동문의 ‘태조의 잔상’ 시리즈 두 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파리에서의 개인전을 통하여 최 동문의 작품을 눈여겨보았던 알렉산더 폰 페 게작(Alexander von Vegesack) 관장이 최 동문을 직접 방문해 소장을 결정한 것으로, 모두 휴제된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두 작품 모두 사양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동양의 절제된 미의식이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게 군다리가 없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서양 가구가 뭉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라면, 우리 한국의 미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괴시하지 않으면서, 범접할 수 없이 깊이 있는 내연의 미를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서양과의 확연한 미의식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비트리 관들은 그들이 깊지 못한 세계, 독자적인 미의식 세계를 높이 사지 않았나 생각해요.’

최 동문이 물고 있는 박물관장실 한 쪽 벽에는 사진 두 점이 걸려있다. 하나는 백제남한 선생의 작품을 찍은 사진이고, 하나는 최 동문이 그의 작품 ‘태조의 잔상’에 앉아 찍은 사진으로 모두 중앙에 서진하고 임영군 교수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다. 그저 무심하게 응시하는 중앙의 심상. 작품 내면에 녹아있는 물이 자체의 이미지가 묘하게 겹쳐지며 자연스레 그의 작품이 각광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회체를 둘러 지난 3월에 있었던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대해 물었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국내 디자인 분야 최고의 박람회로, 사제시간 인 최승천 교수와 최 동문이 함께 작업해 디자인 화제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모교의 활발한 활동의 맥을 확인



『알렉산더 폰 페 게작 비트리 디자인 미술관장과 함께한 최 동문』

한 아주 민족스런 전시회였습니다. 스승님이신 최승천 교수님이 1세대, 내가 2세대로, 풍물이나 사제 간의 시대 차, 같음과 다른을 보여준 아주 특별하고도 뜻 깊은 전시회였죠.まる 아니라 해외 미술 시장 개척을 위한 좋은 계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의 자리에 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 같아요. 당시 기획의 일을 담습시다라는 나의 작품세계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고민했고, 웨딩여행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문화관,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작품세계를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진적 모색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했죠.”

‘모교 미술대학 교수인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항상 중심으로 쓰고 다니는 맹정이 교수님으로 통한다. 그는 사진촬영 시에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중점도 쓰는 것을 엊그제 알고 드워며 말했죠.’

‘아이스트는 자기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 말하면 딱 연상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른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나의 미의식세계와 가치를 높이 수 있게요. 저는 학생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남과 다른 가치를 극대화해서 자신감을 얻고 세계무대를 향해서 나서야겠다고요.’

‘그가 강조하는 국문화를 위해서 가치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는 네 가지를 짚어주며 말했다.

‘첫째로, 문학적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둘째로, 시대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21세기는 21세기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가치를 단순히 딜습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셋째로, 국적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나라에서 인정받는다고 만족하면 그건 토산품을 불과합니다. 세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독창적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야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피하는 경쟁이 필요한 이 시장에서 자기 세계를 확립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닦고 있는 자연의 심상을 그대로 가져와 예술로 승화시키는 최 동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는 그의 모습은 나무를 닦았고, 그의 가구들은 또 그를 닦았다.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가치를 뻗어내는 큰 나무 같은 그에게 지금의 최 동문은 있지 않을까.

‘진인사대(真人師代)는 사람을 향유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 하는 것뿐이요. 결과는 주어지는 거니까 하늘에 맡기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이미 그 자체가 성공적인 일이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태조의 잔상 7~244

알렉산더 폰 페 게작(독일), 알렉산더 폰 페 게작(독일), 2007